

# “大道에 입문한 것은 仙佛 인연 있기 때문”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 달마 이야기



(45) 성체원명(性體圓明)

달마가 설법한 오계(五戒)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 고불(古佛) 시대부터 전해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달마의 설법은 이를테면 모든 가르침을 아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마는 오계의 세번째인 사음(邪淫)을 금(禁)하는 계를 설명했다. 달마는 본래 예절(禮節)을 근본으로 삼은 데서 이 계율이 생겨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절대로 육념(欲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하고 금욕하라고 가르쳤다.

달마는 말했다. “남자는 모름지기 정절(貞節)을 지키고 여자는 정결(淸潔)을 지켜 의마심원(意馬心猿)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날뛰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마음 속에 항상 염치(廉恥)의 씨앗을 간직함으로써 마음은 입(口)에 묻고, 입은 또 마음에 들어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리고 근신해야 하느니라. 부질없는 정념(情念)은 티끌만치도 없어야 하며 그 씨앗은 뿌리부터 잘라 버려야 하느니라.”

### 염치와 예절 소홀히 말라

천지(天地)간에 오직 금수(禽獸)만이 수컷과 암컷이 혼교하여 수컷도 모른 채 추악한 소리를 질러대니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도다. 만물의 장(長)인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염치와 예절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윤리를 어지럽히면 비록 사람이 라고 할지라도 금수와 다를 바 없느니라. 옛 동이(東夷) 곧 배달의 남자는 미인이 지나가도 문을 닫고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느니라.”

허가는 동방예의지국의 연원이 결코 오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 같았다. 세삼 스승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설법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대도(大道)에 입문한 것은 모두 선불(仙佛)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리라. 중생들이 인회(冥會)에 동토(東土)에서 태어난 지 어언 6만 년. 어떤 때는 여자로 태어나 전변(轉變)을 거듭했느니라. 사람은 하늘의 씨앗이니 하늘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삼기(三期)에 이르러 도문(道門)이 널리 열려 있으니,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골육친(骨肉之親)이며 영산(靈山)의 한 핏줄임을 명심할지이다.”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음욕을 한 칼로 잘라 버려야 하느니라. 아무리 미인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맹수나 독충에 물려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될 것이니라. 음욕을 품지 않도록 마음을 뒤아 그 음욕의 그림자조차도 없애버리면 불선(佛仙)이 되는 것은 이미 손아귀에 있는 것과 같으니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음욕은 수마(首魔) 곧 으뜸 되는 마귀이니 도(道)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총체적인 병(病)은 바로 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수행자들의 대부분은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니 겉으로 깨달음에 이른 듯 보이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엉클어져 집승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수행하는 자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자기 마음을 살펴 자문(自問)해 보아야 할지니, 샅된 음욕이 도(道)를 때

질로 마음이 무거워움을 느꼈다. 자기 자신도 말로만 음욕을 품지 말고 했을 뿐 울곧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헤가는 두 손 모아 스승 앞에 다짐했다. “사음계의 가르침을 비로소 깊이 깨달았나이다. 술과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도 설명해 주시옵소서.” “주육(酒肉)을 금하는 계는 원래 지혜(知慧)를 근본으로 삼은 것이니 청(淸)과 탁(濁)을 섞지 말라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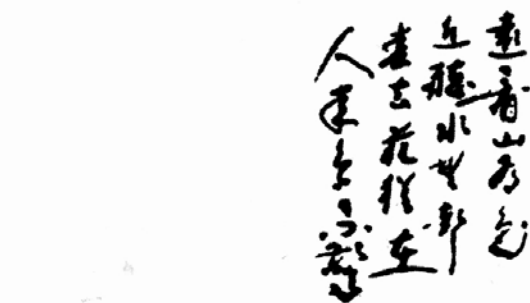
### 세잔만 뱃속에 들어가면

술을 끊고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탁함을 멀리 하고 청정을 머물게 하기 위함이니라. 절대로 입과 배를 탐해서 진성(眞性)을 어지럽혀 미혹케 해서는 안 되느니라. 오계 가운데서 술은 계율의 첫머리라고도 할 수 있느니라. 그대는 결코 가

##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骨肉之親이며 靈山の 한 핏줄

시키는 실상을 깨달아야 하리라. 색(色)에서 태어나서 색으로 죽으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구나. 비록 깨어났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듯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으니, 수행을 이루지 못한 자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뼈는 봉우리가 되었구나. 선불(仙佛)의 뿌리가 타골 세상에 떨어졌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소냐. 큰 뜻을 세운 자는 모름지기 염두(念頭)를 철석(鐵石)처럼 굳게 가다듬어야 하느니라. 색(色)이 공(空)임을 알고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 두고 꾸준히 행하게 되면 이윽고 무인(無人) 무아(無我)가 되어 사상(四相)이 모두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의 본래(本來)의 면목(面目)이 성체원명(性體圓明)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음계를 어린 아이 장난처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지니 모름지기 근신(謹愼)하고 또 근신할지이다.”

헤가는 스승의 사음계에 대한 강설에



◇원담(덕승총림 수덕사방장) 스님 작 달마도(중이세 수묵)

손상시킬 뿐이리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도 기울게 하는 화근(禍根)이 되느니라. 속인(俗人)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두려워하고 삼가하여 경계해야 하거늘 하물며 청결에 귀의하기로 뜻을 세운 수행자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않겠느냐. 비록 감주(甘酒)일지라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그렇게 가볍게 뜻을 꺾으면 심신(心身)의 혼란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라.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도 잘 지켜야 할 것이니, 공(空)이 있어 천도를 시켜 주지 못할정정 어찌 감히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만일 공을 이루고 그 원혼을 풀어주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 죄값을 받으리라. 지옥에 가면 먹은 고기의 분량만큼 고기로 갚으라는 역라대왕의 판결을 받을 것이리라. 고기를 뜻하는 ‘육(肉)’의 글자골에 인(人)이란 글자가 두 개나 겹쳐 있는 까닭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먹은 고기는 사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모름지기 천지(天地)의 청기(淸氣)를 받아 본성(本性)을 이룬 데 비해서 짐승은 천지의 탁기(濁氣)를 받아 태어났

느니라. 그러므로 도를 깨닫고자 하면 탁기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탁기를 제거하면 비로소 청기(淸氣)가 상응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헤가는 스승의 설법을 통해 청기가 하늘로 오르고 탁기가 땅에 떨어지는 이치를 새삼 인식하게 됐다. 달마는 헤가의 진지한 표정을 살피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오계의 마지막 계율인 망어지계(妄語之戒) 곧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을 풀이할 것이니 잘 들어라. 이 계율은 진실(信實)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니라. 사람을 만나서 절대로 허세를 부리지 마라. 빈말을 하지 말라. 말에는 전범(典範)이 있고 행동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니 충신(忠信)덕(德)의 네 글자를 명심할지이다. 충성(忠誠)과 신실(信實) 그리고 돈독(敦篤)과 공경(恭敬)으로 임하면 오고 감에 밝음과 밝음이 있어 조금도 의심이 생기지 않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대개 허황한 말과 야릇한 논리를 펼치면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중인(衆人)을 속이기 일쑤이니 동쪽에서는 좋다고 말하고 서쪽에서는 나쁘다

고 말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니라. 겉모양은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나 마음은 악독하고 입으로 부처님처럼 말하지만 마음은 뱀과 같으니라. 혀는 칼날 같으니 사람을 죽이려 들면 피하여 숨을 곳이 없고, 뜻은 검처럼 사람 몸을 베니 아무도 피할 수 없으리라. 이런 자들은 나만의 배부름과 따뜻함 그리고 편리함과 안온함을 도모하니 다른 사람이야 쓴맛을 보든 단맛을 보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느니라. 이승에 살면서 허를 갈로 삼아 세상을 어지럽히면 저승에 가서 심간(心肝)이 찢리고 혀가 뽑히리라.

수행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에 신(信)이 있어야 하느니라. 과장된 말이나 교묘한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사람을 만나서는 호(孝) 제(悌) 충(忠) 신(信)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예의와 염치를 일깨워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하느니라. 불효하는 사람에게는 호도를 권하고 음란한 사람에게는 정절(貞節)을 권하고, 샅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짐(嚴)을 권하고, 악한 사람은 선(善)의 길로 이끌어 인심(人心)을 잡아서 돌이키도록 하여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을 권하여 신(信)에 따르도록 하면 못된 사람도 없어지고 흉포한 것도 없어져 절로 청평(淸平) 곧 태평(太平)을 보게 되리라.

### 허황한 말과 야릇한 논리

하늘과 땅, 연월일시(年月日時)는 모두 신(信)에 따라 운행되고 있느니라. 만물과 사람도 역시 신에 따라서 생겨났느니라. 만약 신이 없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인륜(人倫)이란 있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 신이 있기에 해와 달과 별이 북두(北斗)를 밟고 따르는 것이며, 땅에 신이 있기에 물과 불과 바람이 곤륜(崑崙)을 밟고 움직이고 있으며, 해(海)에 신이 있기에 사시(四時) 곧 사계절에 온(溫) 열(熱) 랑(涼) 한(寒)이 있으며, 달(月)에 신이 있기에 초하루와 보름에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으며, 날(日)에 신이 있기에 십이시(十二時)에 자시(子時)와 오시(午時)가 표준이 되고 있으며, 시(時)에 신이 있기에 시간마다 팔각오분(八刻五分)이 있으며, 과(卦)에도 신이 있기에 건(乾) 곤(坤) 감(坎) 리(離)가 정하여 있느니라. 신은 토(土)에 속하여 오상(五常)을 꿰뚫고 오행(五行)을 일관(一貫)하느니라.

하늘과 땅이 합치되면 연월일(年月日)은 당연히 신(信)에 따라 운화(運化)하고 만물과 사람도 그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니 생겨나면 화(化)하고 화하면 생겨나는 것 또한 하나의 신에 의한 것이니라. 만약 신이 없다면 화고하고 하는 해도 화하지 못하고 생기려고 하는 해도 생겨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계는 엄격하게, 한치의 어김도 없이 지켜야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계는 오행과도 밀접하게 연관시켜야 하느니라. 여기에 더하여 삼화(三化)를 머릿골 정수리에 모아야 하느니라.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삼염(三願)을 깨끗하게 지켜 버려야 하느니라.”



월간역사는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공학의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적 전문지로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2월호에는 주역 활용법 「역점(易)」, 3월호에는 「철관(철)의 「법(법)공」, 4월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 5월호에는 「조선의 산수(산수)장법」, 6월호에는 「조선의 무력」, 7월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대하여, 8월호에는 「중국민간(중국민간)에 전해지는 회혼비결」, 9월호에는 「한기(한기) 차(차) 제(제)기」를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 누가 풍수지리를,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역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인히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수되어 오던 명당법지이다. 명나라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납골당, 가족 납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형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관,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계몽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자장(magnetic field)을 띠고 거대한 자석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음(-)·양(+)의 전하(electric charge)를 발생한다. 이 +·-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될 때에서는 특별한 지기가 발생하는데, 이 지기가 생(生氣)이며, 이곳이 바로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에서-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기운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평형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 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열로 최정화도록 합금된 센서를 감작하고 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치 않고 반드시 명당 형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변성해온 사찰의 대응전,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변성한 가문의 유명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틀림없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가격은 월간역학 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4개월 분할 가능)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택담지봉 1세트 무료 증정.  
●월간역학 지난호(창간호-2001년 8월호)를 88만원에 판매하며, 단,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 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월간역학 (02)2264-0258**      **은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꿈풀이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 (한국 내선번호 포함)  
서울시 중구 권역동 2가 303-15 청옥빌딩 101호

## 명당 탐지기 - 관룡자

9월 15일(土) 충남 예산의 명당 풍수연구회, 회비 2만원(교편, 중식 포함)